“군법당 지역신행사찰로…軍신행문화 정착”

인터뷰 | 조계종 제6대 군종교구장 능원 스님

기도 정진 정례화 및 활성화
사암련 연계, 실질 지원 연결
전략 포교 위한 재정 마련도
군승 인식 개선 후보생 육성
“빠른 주지 경험…장점 홍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6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으로 능원 스님<오른쪽 사진>이 취임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11월 29일 지상작전사령부 호국선봉사 대웅전에서 6대 교구장 능원 스님 취임법회 및 제54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11월 22일 호국원광사에서 만난 능원 스님은 담담한 어조로 취임 소감을 밝혔다. 군승 지원 감소 속에 파송 문제 해결과 홍제사 불사 등의 산적한 과제 속에서 군포교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졌다.

능원 스님은 “사찰 유지보수를 비롯해 군승법사들의 월급 등을 국방부로부터 받는 군종교구는 다른 교구로 따지면 수말사에 해당되는 주요군법당도 있어 재정적으로 자립가능한 구조”라며 “4년간 재정적 여력을 갖춘 자립구조 속에서 각종 불사나 전략포교의 밑바탕을 놓고 싶다”고 전했다.

군종특별교구는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불사에 이어 계룡대 영외법당인 홍제사 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조계종이 백만원력결집불사 사업으로 홍제사 불사를 포함시키고 지원하지만, 군종교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크다. 홍제사 불사 외에도 이후 노후된 주요군법당과 군 재편 및 이동에 따른 새로운 불사가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승법사 출신인 능원 스님은 2010년 남해 보리암 주지로 임명되며 보리암에서 관음성지 기도를 활성화 시킨 경험이 있다. 특히 보리암에서는 법회 정례화와 자시(子時)기도 운영 등 신행문화 정착에 앞장섰다.

능원 스님은 “은사 스님께서는 ‘중은 목탁만 치면 옷도 생기고 쌀도 생긴다’



고 하셨는데, 그 말은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는 본분에 충실하면 다 된다는 말씀이셨다”며 “저도 열심히 기도정진해보니 여러 가지 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스님은 당시에 신도들을 위한 상시 차담을 하고 신행상담 등을 진행했다. 자연스럽게 신도들이 늘고 이러한 바탕 하에 마련된 재정으로 불사 및 지역장학금과 자비나눔 등을 진행했다.

스님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도시 군법당의 경우에는 신도조직화와 기도활성화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군승법사들은 신심과 원력을 가진 이들이고 한번 뭉쳐지면 큰 역량을 발휘하기에 이들이 모두 힘을 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군승 수급 과제에 대해 스님은 “군승 파송은 출가자 감소라는 큰 원인이 있기에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올해 파송 미달 등 여러 사태와 언론의 보도 속에 지원 독려로 18명의 예비자원을 충원한 상태다. 종단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군승에 대한 인식을 전환, 지원을 늘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본인도 말사 주지를 맡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종단에서도 오랜 시간을 요구한다. 출가를 앞둔 스님들도 군승의 경우 본사에서 하지 못하는 주지직을 빠르게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군승 수급책 중 군종사관 후보생의 경우 타 사관후보생이 받는 품위 유지비와 같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승단이 예비승려를 배출한다는 인식으로 후보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스님은 ‘지역포교와 함께 하는 군포교’ 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스님은 “군포교의 경우 군법당 외에도 사암연합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구본사와 군법당간 자매결연 외에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암연합회와의 결연, 군포교에 원력있는 스님들의 발굴 등을 통해 일선 군포교 현장 활성화를 이뤄보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에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원명 스님은 前 인권위원 퇴휴 스님 후임으로 지난 9월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최근 대통령이 지명·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인권위는 11월 22일 “원명 스님은 환경보호와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사회복지법인 봉은 대표이사로서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원명 스님은 국가무형문화재 위원, 사단법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여진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동국대 이사 등의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와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 新이사에 종호 스님, 최진식 대표 선임

학교법인 동국대 신임 이사로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과 최진식 심팩 대표가 신임 감사로는 현 감사 원명 스님과 정수사 주지 도림 스님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는 11월 22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46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와 감사를 선출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회의에서 내년 2월 28일 임기 만료되는 이사 성우 스님 후임으로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과 조계사 선림원 지도법사 원충 스님을, 내년 1월 4일과 4월 24일 임기 만료되는 감사 원명 스님과 일화 스님의 후임에는 원명·우봉 스님, 도림·해량 스님을 각각 복수 추천했다.

또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24일 임기 만료되는 이은기 이사 후임으로 최진식 심팩 대표와 양형진 은석초 교장을 복수 추천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 성우 스님 후임에 종호 스님을, 이은기 이사 후임에는 최진식 심팩 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또한, 감사 원명 스님의 재임과 일화 스님 후임 감사로 도림 스님을 선임할 것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11월 22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46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 346차 회의서 만장일치
감사엔 원명·도림 스님 선임
총추위 논의… 내년 1월 선출
시스템반도체학과 신설 확정도

또한 이날 이사회는 제20대 총장 선출 과정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사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키로 했다. 총추위는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추천 4명을 비롯해 교원 대표 12명, 이사장 추천 사회인사 대표 3명, 직원 대표 4명, 동창회 대표 2명, 총학생회장, 대학원 총학생회장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총추위는 12월 13~14일 지원서를 접수 받고 12월 27, 28일 경 마지막 전체회의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초 이사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20대 총장이 선출된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시대 변화에 선도하기 위해 서울캠퍼스에 반도체 특성학과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과대학 물리·반도체과학부(정원 63명)를 내년부터 이과대 물리학과(정원 23명)와 AI융합대학 시스템반도체학부(정원 40명)으로 개편하게 된다.

학교 측은 “반도체 특성학과 신설로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통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비구니회, 미얀마 평화기원 구호품 전달

11월 19일, 3천만원 상당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미얀마 내전으로 도피 생활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고 평화를 기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19일 전국비구니회관 1층 강당에서 ‘미얀마 민주평화 기원 법회 및 제3차 미얀마 구호품 전달식’ 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구호품은 3000만원 상당으로 침낭 500개, 방한복 400벌, 감기약 5000통, 햄 2000캔, 라면 400박스 등으로 구성됐다.

비구니회는 지난해부터 미얀마인들을 위해 꾸준히 지원을 이어왔다. 2021년 8월 28일, 2800만 원 상당의 코로나 의료구호품을 전달한데 이어 2022년 3월 1일에는 독립을 도모하는 활동가들을 위해 침낭과 비상식량 등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서울 소재 비구니 사찰을 중심으로 미얀마 민주화평화를 기원하는 릴레이 기도를 봉행해오고 있다.

이날 전달된 구호품들은 재한 미얀마 대학생연합회와 재한 미얀마 봄 혁명 지지자 단체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19일 전국비구니회관 1층 강당에서 ‘미얀마 민주평화 기원 법회 및 제3차 미얀마 구호품 전달식’ 을 개최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불교국가 미얀마가 다시 민주화를 이루고 평화를 되찾을 때까지 미얀마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재한미얀마 봄혁명 지지자 회원들과 재한 미얀마 대학생연합회 학생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점점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미얀마를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비구니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발원문을 낭독을 통해 미얀마 민주화와 평화를 염원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재한미얀마인들과 함께하는 송년법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불교종단협의회 기후환경위원 워크숍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는 11월 21~22일 ‘마음청정 지구청정’ 을 주제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불교기후환경위원 워크숍’ <아래 사진> 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0여개 종단, 40여 명의 불교기후환경위원들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이 ‘전환의 시대, 환경위기와 불교의 세계관’ 을 통해 불교의 세계관과, 대전환을 위한 실천과 성숙한 행복을 위한 삶으로의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회향식에서는 실천선언문 낭독과 재생과 치유, 정화의 상징인 버드나무를 심으며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후보살로서의 의지를 되새겼다. 신성민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본회는 1995년 창립 사단법인으로써 한국불교는 물론 세계불교 발전을 위하여 종단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단체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위령대재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는 서울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8명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위령대재를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이사장 겸 회장 월인 대종사와 회원 50여종단 종정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하여 영남범음범패 통도사 소리보유자 어장 정산당 청봉 대종사님과 그의 문화 달오스님, 법경스님 희유불교무용원장과 경기 범음범패 송강소리어장 도연 대종사 외 7분의 어산스님들이 시련, 극락무, 대령, 관욕, 관욕바라, 화이재진언바라, 신중작접, 관음무, 천수경, 천수바라(경기,영남), 도량게나비춤, 추도사, 지장청, 오공양바라, 화청, 살풀이 신중퇴공, 관음시식, 살풀이, 소대, 회향 식으로 진행하며 영남과 경기의 범음법패소리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위 영가님들의 고통을 여의케하고 극락왕생으로 인도하는 위령대재를 경기도 안성 영평사에서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 일시 : 불기2566(2022)년 12월 16일(음력11월23일) 금요일 오전10시~
● 장소 : 안성 영평사 특설무대 (경기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길79-42) 영평사전화 : 031-676-3690
회장(이사장) 월인 대종사 : 010-3590-4848, 서병열 사무총장 : 010-6253-4936

정각 대종사, 삼중 대종사, 의천 대종사, 혜우 대종사, 호암 대종사
월인 대종사, 정산 대종사, 정림 대종사, 도우 대종사, 월성 대종사, 정일 대종사, 지엄 대종사, 영월 대종사
법혜 대종사, 법조 대종사, 도연 대종사, 법흥 대종사, 월단 명사, 보안 현덕, 혜승 대종사, 옥당 명사
일응 대종사, 무각 대종사, 지환 대종사, 혜원대종사, 법휴 대종사, 도오 대종사, 명암 대종사, 이붕 대법사 외

● 대전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동부상가맨션2층 216-1호 전화 : (042) 285 - 1227 ● 사무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81 혜명빌딩 6층 전관 전화 : (02) 756 - 1227 팩스:774-1487